

시민운동의 재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회의를 제안 한다.

박영숙 보리종합유치원장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공공활동을 위한 기부문화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의 시작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정치사회적변화와 사회경제적 상승효과를 도출해 내는 사회운동들이 조
러내고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주목되면서 함께 제기된 문제인 시민운동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 왔으며 앞으로는 더욱더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① 전문대형인 한국형 기부문화 ② 정부의 제도적인
주체성과 정부주도의 지원책 ③ 기업의 경영윤리강제요인의 기부행위 ④ 시민단체의
모금활동과 마케팅전략의 미숙등을 들고 있다.

보리안에서는 환경상위부터 주체적 기부문화 ① 투명하고 명예로운 기부문화확산
② 투명하고 공개적인 재단운영 ③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ESG) ④ 행정활동의 주체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인 재정부조기구 설치
필요성 공론화 활동 등이 있다.

지정된 문제나 보리안이 추구하는 것은 제반사항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노력
보다는 단계적이며 여러 문제들이나 제도의 제정 등을 개선할 때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책적으로 관련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비록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기부문화에 적용하기 위한 것은 중요한 시민사회운동으로서 추구하는
주제이다. 공공활동의 재정지원을 위한 재단들이나 재정부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민운동체들이 함께 참여해 주어야 하며 정부기부금의 재분배기금으로
부여의 정당성과 재분배를 재정부조기구로서의 <중간기구 - Intermediary
Organization>가 우리사회에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미국의 <인디펜던트 섹터 - Independent Sector>는 1980년대
에 창설된 기부금의 현재 자원봉사와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 800개의 비영리단체
를 갖고 있다. 이기구는 해마다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각기 다른 역할과 역할을 점검하며 재정적 정책적 등을 비롯한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 발휘 및 재분배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지극한 양도
를 도모하고 있다.

2000년 12월 10일에 이기구의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했던 시민으로서
많은 강한 인상으로 미국시민사회 발전의 뿌리를 따라 그러한 인식을
얻어낸 것만으로도 아쉬움이 남는다.

보리안이 시민사회의 모든기관들이 함께 묶여 시민운동의 재정부조
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회의 개최를 공개적으로 제안하게 된 것은 그러한
경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지극히 가까운 장래에
개최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한다.